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23장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끌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내용은 이전에 모세가 했던 당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먼저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우에 있는 세상의 유혹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이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당연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조금만 틈만 나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틈난 나면 이방의 신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24장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만일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따르기 위해 여호와를 떠나겠다고 하면 여호수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그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화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대한 것은 오래 기억하지만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친절히 대해준 것은 곧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지마는 우리 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금새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17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 19-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5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단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이유 때문에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따른다고 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멸망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곧바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들의 세대는 모두 다 죽었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곧바로 여호와를 떠나 이방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신앙이 나 하나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의 올바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다음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